

승용차 연료비 지출비율과 지출액의 영향요인 분석

- 휘발유 가격변화를 중심으로-

김 숙 향* (전남대학교 가정학과 박사과정)

황 덕 순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휘발유 가격을 포함하여 소비지출 비목들의 가격들이 승용차 연료비의 지출규모 및 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소득집단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가계경제측면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소비지출 비목의 '가격'을 다룸으로써 소비지출 구조를 좀더 명확하게 분석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의 물가정책 및 휘발유 가격정책이 가계의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결과는 차후에 이에 관련된 경제정책을 입안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문제1 : 가계소득에 따라 생계비 및 소비지출 비목의 물가가 승용차 연료비의 지출액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2 : 가계소득에 따라 생계비 및 소비지출 비목들의 물가가 승용차 연료비의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1의 연구모형은 다중회귀분석모형이며, 연구문제2의 연구모형은 관련방정식 체계(complete system of demand system)모형 중의 하나인 Deaton 과 Mullbauer(1980)의 선형화된 준이상수요체계(Linear Approximations Almost Ideal Demand System; LA/AIDS)이다. 연구문제1의 종속변수는 연료비의 지출액이다. 독립변수는 가계의 생계비, 휘발유 가격, 식료품 물가(외식비제외), 교양오락비 물가, 기타물가로 선정했다. 연구문제2의 종속변수는 연료비의 지출비율이다. 독립변수는 가계의 생계비, 휘발유 가격, 식료품물가(외식비제외), 교양오락비 물가, 기타물가로 선정했다.

분석자료는 도시가계연보와 물가연보의 1994년-1997년 자료이다. 분석방법은 연구문제1은 일반화 최소제곱법(Ordinary Least Square, OL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2은 표면상 무관회귀방법(iterated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ITSUR)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휘발유 가격상승은 소득이 높을수록 승용차 연료비 지출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승용차 연료비의 지출비율의 영향요인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휘발유 가격이 상승하면 고소득가계는 승용차 사용이 선택적 성향이 강해서 연료비 지출액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저소득가계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필수적 성향이 강해서 지출액을 고소득가계보다 많이 줄일 수 없다고 보여진다. 또한 고소득가계보다 승용차 연료비 지출지출도 높아서 결과적으로 지출규모 및 지출 비율측면에서 다른 가계 소득집단보다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을 역행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휘발유에 대한 가격정책을 입안할 때 저소득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휘발유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를 줄이거나 폐지, 소형차 소유자에 대한 자동차세 세금 인하 등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